

일반
논문

1981년 최창학의 원폭문학 「해변의 묘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행선 _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최창학(崔昌學, 1941~2020)의 원폭문학 「해변의 묘지」(1981)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창학이 작품을 구상하던 1970년대 후반은 데탕트가 끝나고 미·소가 신무기를 바탕으로 핵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던 시점이었다. 그는 소련의 SS-20 배치와 아프가니스탄 공습, 레이건의 등장 등을 목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으로 시선을 향했다. 그 무렵 한국의 원폭 피해자에게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1980년 10월 8일 한·일 양 정부는 피폭자의 도일치료를 결정했다. 작가는 1970년대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개원, 손진두 소송의 승소, 도일치료 등을 접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요컨대 '손진두 소송'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고 도일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으로 열린 시점에서 최창학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무엇을 대변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전쟁과 피해자의 역사를 서사의 대상으로 삼은 전달자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변의 묘지」는 이런 고민의 산물이기에 이 소설이 지닌 문학적 전략과 효과는 구명(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원폭 유전, 원폭병, 공감, 폴 발레리, 냉전

1. 들어가며 : 소련의 SS-20 배치, 핵미사일 경쟁

이 글은 소설가 최창학(崔昌學, 1941.7.26~2020.1.27)¹⁾의 「해변의 묘지」(1981)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단편소설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다룬 ‘원폭 문학’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広島), 8월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략 70만 명(히로시마 42만여 명, 나가사키 28만여 명)으로, 그중 10%인 7만여 명(히로시마 5만여 명, 나가사키 2만여 명)이 조선인이었다. 조선인 피폭자 가운데 사망자는 4만여 명(히로시마 3만여 명, 나가사키 1만여 명)이었고, 살아남은 자는 3만여 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2만 3,000여 명(히로시마 1만 5,000여 명, 나가사키 8,000여 명)이 1946년을 전후로 귀국했다. 북한으로 간 피폭자는 2,000여 명이었다. 일본에 잔류한 피폭자는 7,000여 명(히로시마 5,000여 명, 나가사키 2,000여 명)이었다.(정재정 2014, 334) 이 충격으로 일본에는 원폭문학²⁾이란 비평용어가 성립되어 있을 만큼 원폭 피해국가로서 다수의 작품

1) 최창학(崔昌學, 1941.7.26~2020.1.27)은 1941년 전북 익산군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오산남국민학교 3년 때 6·25를 경험했고 1954년 이리로 이사한 후 남고교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5년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1년 다니다 그만둔다. 1968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중편 「창(槍)」을 시작으로 도합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물 수 없었던 물음들』, 『바다 위를 나는 목』 등의 작품집과 『긴 꿈속의 불』, 『아우슈비츠』 등의 장편, 『최후의 만찬』, 『창』 등의 선집이 있다. 1978년부터 출판사 편집원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맡은 후 30여 년 동안 수십 명의 제자를 소설가로 배출했다. 2017년 말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2020년을 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 항암주사를 맞아가며 실명 자서전적 장편소설 『케모포트』를 썼다. 그는 2020년 1월 27일에 타계하였다.

이 있다.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도 원폭의 피해자였지만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다룬 한국의 원폭문학도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는 단편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초기 원폭문학으로서 큰 가치가 있다.

작가 최창학은 어떠한 맥락에서 원자폭탄과 피해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후 미소 냉전의 중심에 핵무기가 있었다. 최창학이 작품을 구상했을 1970년대 중후반 상황을 살펴보면, 1977년 소련이 최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SS-20을 서유럽을 조준해 배치했다. SS-20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량된 것이었으며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은 이에 대한 경고도 듣지 못했다. 이 사건은 NATO에게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구를 촉발했다. 1979년 카터 행정부는 서유럽 내 선택 지점에 퍼싱II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순항 미사일) 배치 계획을 세웠다. 퍼싱II 미사일은 소련의 SS-20보다 15배는 더 정확하다고 평판이 나 있었다. 이런 파행이 있었는데도 카터와 브레즈네프는 1979년 6월 비엔나에서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II 조약에 서명하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동년 12월 초 NATO 동맹국은 투표를 통해 퍼싱II와 순항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국면에서 동년 12월 27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침공³⁾하기 시작했다.

-
- 2) 원폭문학은 원자폭탄 투하로 생긴 여러 가지 비참한 사건을 소재로 한 문학 텍스트를 가리키며 겐바쿠 분카쿠(原爆文学)라고 한다.
 - 3)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8년 군사 독재자를 전복시킨 아프가니스탄의 공산당 정

이 여파로 미 카터 대통령은 상원에서 SALT II 조약을 철회하고 소련에 곡물과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그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의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발표했다. 카터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캐디스 2010, 276-296). 198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를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레이건은 1981년 취임사에서 "데탕트는 지금까지 소련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한 일방 통로였다"면서 그 목적은 바로 "세계의 공산화"라고 못 박기도 했다. 레이건 집권 직후 카터 행정부

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 사회 개혁(농업집단화, 여성 부르카 관습의 폐지 및 교육,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 공격 등)이 이슬람의 반란을 자극하고 이슬람 봉기라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거듭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여론은 소련의 침공을 소련 팽창주의의 징후로 간주했다.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그 자신의' 동유럽 제국의 범위를 넘어서 직접 군사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식민지 이후의 세계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세력으로서 구축된 소련 이미지는 침공이라는 소련 '제국주의'의 증거에 의해서 퇴색된 것이다(라자놉스키 2011, 850). 소련군이 소련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이슬람 산악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사실상 소련은 여러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1978년 4월부터는 지배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관측자가 소련의 침공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카터는 소련의 침공은 "세계 석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카터는 격분하여 소련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1980년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는 한편, SALT II에 대한 상원의 심의를 무산시켜 버렸다. 그 이전, 1979년 초 카터는 비엔나에서, 연로한데다 병까지 겹친 브레즈네프를 만나 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 핵탄두 등의 보유에 한계를 정하는 새로운 SALT II, 즉 전략무기제한협정의 초안을 완결했다. 그러나 곧바로 SALT II는 미국 내 보수파의 치열한 반대에 부딪혔다(브링클리 2011, 505).

때 소련과 협상을 벌였던 SALT II 조약은 완전 중단됐다(정육식 2012, 289). 1981년 11월 18일 미국 측은 소련이 SS-20 미사일을 전부 해체하면 퍼싱II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소련이 미사일 1,100개를 제거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는 애초에 소련이 거절할 것을 예상한 제안이었다. 소련의 거절을 명분으로 미국은 새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핵동결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서유럽에서 반핵 시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NATO의 새 미사일 배치가 진행되었다(캐디스 2010, 306).

게다가 1983년 3월 8일 레이건은 공산주의가 “국가지상주의를 전파하고 개인에 대한 무소불위의 힘을 선언하며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의 만백성을 지배하리라고 예고하고 있는 한, 그들은 바로 현대 세계에서 악의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핵전쟁”의 전략으로 전략방위구상(SDI, 스타워즈)을 들고 나왔다.⁴⁾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는 1980년에 비해 1985년 두 배로 늘어났다. 신냉전이 절정에 달한 1986년에는 두 나라의 핵무기 보유량이 7만 개에 육박했다. 미소 간 핵 군비 경쟁이 격화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핵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퍼싱II 미

4) 미국은 중요한 재무장 계획에 착수했다. 1981년 8월 레이건은 중성자 폭탄을 비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82년 11월에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위반하고 MX미사일 체제를 발표했으며, 다섯 달 뒤에는 전략방위계획(SDI, 스타 워즈)을 선언했다. 소련은 전략방위계획이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는데, 이 주장은 근거가 확실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공식적인 군사원조와 은밀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85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분은 6%로 평화 시기 치고는 전례 없이 높았다(주트 2019, 251-252).

사일의 유럽 배치 반대운동이 주요 대도시를 집어삼켰다. 당황한 NATO의 회원국은 레이건 행정부에 핵미사일 배치를 재검토하고 소련과의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정옥식 2012, 288-292).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은 미소가 데탕트를 끝내고 신무기를 바탕으로 군비경쟁과 핵 전략자산 확충을 가속화하던 시점이었다. 작가 최창학은 소련의 SS-20 배치와 아프가니스탄 공습, 레이건의 등장 등을 목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으로 시선을 향했다. 1980년 무렵에는 한국 내 원폭피해자에게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1979년 11월 29일 한국과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한국의 원폭피해자 60명을 일본에 보내 원자병전문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1980년부터 한국 의사 5명을 일본에 보내 원폭환자전문치료기술을 연수시키고, 일본 전문의 5명을 한국으로 초빙해 피폭자 치료 및 기술 지도를 하게 했으며, 국내원폭피해자협회의 운영비를 공동 지원키로 결정했는데⁵⁾ 1980년 10월 8일 한일 양 정부는 도일치료 사항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일치료는 기간 2개월, 치료비는 일본정부 부담, 도항비는 한국정부 부담으로 하고 총 5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도일치료는 1986년 11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190).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徐錫佑(서석우)·62]는 1일 “일본정부는

5) “한국原爆重患60명 渡日치료합의”. 동아일보 1979/11/29, 7.

현재 생존한 2만여 재한 한국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 전원에게 일본인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치료 수첩을 교부할 것과 한국에 종합원폭병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지난 30일 일본국내법인 「원폭의 법」 적용을 받기 위해 밀항한 손진두 씨(51)가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는 보상문제에 앞서 도의 양심상의 책임감을 갖고 피폭자를 위한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⁶⁾

공화, 대일 교섭방침. 공화당은 현재 한일 양 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대책협상에서 중환자의 도일 치료와 전문의사 상호교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자민당과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공화당은 8일 오후 홍성철 보사부 장관 이민용 외무부 차관 등 정부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원폭피해자대책관계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현재 9,000명 내지 2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대책으로 ▲중환자의 도일치료 ▲전문의사의 상호교류 ▲원폭병원 건립 ▲피해자 생계자활대책 ▲피해자들의 2세 취업보도 ▲한국인 환자 실태의 공동 파악 등 여섯 가지 제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보고했다.⁷⁾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피폭자 손진두가 있었다. 한국 원폭피해자운동

6) “被害協성명 韓國人原爆피해자 日서醫療혜택줘야”. 동아일보 1978/4/1, 7.

7) “韓國人 被爆者 渡日치료 추진”, 동아일보 1979/6/9, 1.

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첫 소송이 피폭1세 '손진두의 소송'이다. 1972년 일본 사회에 한국인 피폭자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피폭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 손진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송(1972.10.2~1978.3.30)의 승소에 의해 한국인 피폭자에게도 피폭자건강수첩 발급과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피폭자가 일본을 벗어나면 '통달402호'라는 행정명령에 의해 그 권리가 박탈되는 한계가 있었다.(이행선 2018, 177)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손진두의 승소로 일본정부의 '피폭자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다', '한국인피폭자 보상문제는 한일조약에 의해 해결 완료'라는 주장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1978년 4월 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이 재판이 손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피폭자와 일본 정부와의 쟁의이며 이번 승소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적극 회피하려고 했던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이 확정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일본정부가 외국인피폭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2011, 177-179). 한국의 보사부도 1978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예정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 해방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섰다.⁸⁾ 일본 히로시마 핵금회회의

8)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처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30일 일본최고재판소가 원자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 후쿠오카현을 상대로 피폭자수첩교부 소송을 제기한 손진두 씨(51)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로서 입국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인 피폭자와 똑같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건강수첩」을 교부, 무료치료해야 한다.”고 판시, 승소판결을 내리자 일본후생성에서 외무부를 통해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밀입국을 예방하고 그 대신 특수병원건립 특수의료기구 공급, 전문의교육 등

지원으로 1973년 12월 15일 경남 합천군에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가 개원하기도 했지만,⁹⁾ 손진두의 밀항과 소송으로 일본의 피폭자운동과 원수금운동에서 재한 피폭자 문제가 비로소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고 재한 피폭자의 지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작가 최창학은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개원, 손진두 소송의 승소, 일본 도일치료 등을 접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던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 투쟁 주도의 한국반핵운동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폭 투하에 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목을 끌지 못했다. 한국에서 1970년대 말은 아직 원자력 발전소도 정착하기 이전이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1호기’(1971.11착공, 1977완성)가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감안하면 최창학은 한국에서 아직 반핵 인식이나 반핵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지는 않았지만¹⁰⁾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전국 원폭피해자 첫실태조사 망각 33년 만에 ‘구원의 빛’”, 동아일보 1978/8/3, 4).

9) 1972년 일본핵금회회는 경남 합천군내에 진료소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10월 조사 결과 293세대 2,197명이 파악 되는 등 합천에 피폭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무렵 합천군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2,197명, 미등록자는 2,000여명이 추산되었다. 1971년 10월 진료소 건립 협약에는 일본이 건물과 치료기구 일체를 책임지고, 한국은 약과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남도 측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사부 의정국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974년 6월 이후 진료소는 사실상 휴업 상태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10) 1980년대 표문태의 반핵운동에 대해서는 이형선(2021a, 87-123) 참조.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으로 핵자산 확충에 몰두하던 시점에서 원자폭탄과 원폭 피해자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듬었던 것이다.

요컨대 1981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와 고통을 폭로하는 최창학의 소설 「해변의 묘지」가 발표되었다. 당사자의 염원이 반영된 ‘손진두 소송’의 결과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고 도일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으로 열린 시점에 나온 소설은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신사를 고민한 이소마에 준이치가 “역사의 무대에서 말살되는 사자(死者)와 희생자. 우리 사회는 이런 소거를 얼마나 반복해 왔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자의 유산을 전해주는 공공적 행위와 그 목소리를 ‘번역’하는 기술”(이소마에 준이치 2016, 8-27)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처럼, 최창학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을까. 전쟁과 피해자의 역사를 서사의 대상으로 삼은 전달자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는 이런 고민 속에서 산출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전략과 효과는 구명(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원폭의 참상과 원폭 후유증

사회적으로 소외된 특정 피해자를 사회화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존재와

피해 사실, 실태 등의 지식을 독자에게 알린다는 의식이 전제된다.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문학화된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이었다.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주한일본대사관에 재한 피폭자의 손해보상으로 미화 23억 달러를 요구했다.¹¹⁾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 5년간 진행했던 도일 치료의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1986년 11월 2일 도일 치료가 중단되었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206). 협회가 배상을 요구할 무렵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일본과 전후 처리가 외교 현안이 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가이후 도시키 수상은 재한 원폭 피해자에게 인도적 의료지원 명목으로 총액 40억 엔을 약속했다. 당시 과거사의 현안은 재일한인 국적, 원폭 피해자, 위안부, 사할린 징용 등이었는데 원폭 피해자에 주목한 일부 작가가 작품화를 시도했다.

김원일의 중편소설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6)과 김태연의 장편소설 『그림 같은 시절』(1994.12)이 이 무렵에 나온 원폭문학이다.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1992년 『작가세계』 6월호에 발표되었고 같은 달 소설모음집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92년 초 한겨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원일의 소설은 일본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의 1차 거출금이 대한적십자에 입금(1991.11)되고, 아직 2차분이 입금(1993.2)되기 이전의 작품이다(이행선 2021b). 김태연의 『그림 같은 시절』은 2차 거출금이 입금 완료(1993.2)되면서 한국 정부

11) “被爆者 日에 23億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12/1, 11.

가 이 재원으로 원폭 피해자 치료, 수당지급 등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합천에 원폭 피해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전용의료복지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설 준비 작업을 하던 시기에 산출된 작품이다. 시간적 배경은 1970년 꽃샘추위가 밀어닥치는 새학기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 주인공이 부산으로 전학을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까지 1년간이다. 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피폭 당한 지 한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두 소설은 모두 한국에서 살아가는 피폭 1세뿐만 아니라 피폭 2세의 고통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는 앞에서 언급한 도일 치료가 시행된 1981년에 나왔다. 최창학의 소설은 원폭문학으로서 1990년대 초중반의 소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원일과 김태연의 작품은 주인공이 모두 원폭 피해자 및 후손이다. 최창학의 작품은 주인공이 원폭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단편소설이다. 작품이 짧기 때문에 원폭의 전모를 전달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이는 원폭의 서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가령 구술사를 참조하면 한국에서 본격적인 원폭 증언집의 시작을 알린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2005)은 증언자의 피폭 경험을 원폭 피해자의 생애 전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은 피폭 구술자 20명이 그 장소에 있어야 했던 역사적 의미를 물었다. 『한국원폭 피해자 65년사』(2011)는 일본에서 나온 원폭 체험 이야기가 대체로 '피폭 체험'이어서 식민지 조선인이 도일하게 된 계기나 생활 등의 내용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들 대담자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확장해

보면 ‘피폭의 순간’만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증언을 극복하고, ‘도일 이전, 이후, 피폭 당시, 귀국, 귀국 이후의 삶’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희생자를 온전히 대변하고 이해하며 공적 기억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었다(이행선 2018, 160).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입장에서는 피폭 이후 한국에서 원폭 후유증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사정을 한일 양국에 호소해야 했다. 그래서 피폭 체험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의 삶’의 재현도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원일, 김태연의 소설은 모두 ‘도일 이전, 이후, 피폭 당시’는 간단히 언급하고 귀국 이후 한국에서 살아가는 피폭자와 피폭 2·3세의 고생담을 서사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하며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의 서사를 살펴보면, 주인공 ‘나’(20대)는 연인 윤희와 함께 무더운 여름 피서를 즐기기 위하여 어느 해변가에서 민박한다. 이들은 피서철이라 바닷가 인근에 방을 구할 수 없어 고생하던 차에 방을 내 줄 수 있다는 한 노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뜻밖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노파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였으며 원폭병이 아들과 손자에게도 유전되어 노파의 가족은 마치 나병환자와 같이 비참한 물골로 동네 사람들과 유리되어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연인과 두 사람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나’는 노파 집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싫어서 당초 5일 일정의 숙박을 3일로 단축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다. 즉 최창학도 피폭 3대를 소설의 대상으로 삼는데 주인공 ‘나’가 피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난한 삶은 ‘나’가 피해자의 얘기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나’

의 친척 중에도 원폭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는 ‘나’의 친척 얘기와, 당사자인 노파와 아들의 두 구술을 통해 원폭병의 실상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최창학이 세 사례(친척, 노파, 아들)를 통해 서사화한 원폭의 참상을 살펴보자.

우리와 한 동네에서 소작농을 하며 어렵게 살던 이종사촌형이 내가 국민학교 삼학년 때 동네 강둑에 있는 수문(水門)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다. …(중략)… 우리 부모님이나 아주머니(죽은 형의 부인) 이야기는, 죽은 애들에 대한 속상함과 지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정신은 멀쩡해져 가지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결혼한 지 십년이 가까이 되도록 애가 하나도 없었다. 배긴 몇 차례나 뻘으나 낳기도 전에 죽거나 또는 낳아 한 달도 되지 않아 죽었다. 두 번이나 사산을 해 온갖 약을 먹고 조심조심 아들을 낳는 데 겨우 성공했는데 그 애마저도 무슨 병인지 병명도 잘 알 수 없는 병으로 한 달이 못 되어 잃었다. …(중략)… 그런데 이제 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전부터도 이상하게 무겁고 찌뿌드드한 증세야 늘 있어왔지만 그래도 농사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농사일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온 몸이 썩시고 화끈거리다 못해 어떤 땀 네 방구석을 이리 기고 저리 기며 참아야 될 정도의 고통에 몸부림 쳤다. 그것이 불치의 원자병 때문임을 그가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었다. …(중략)… 이 땅에 들어와 그가 몇몇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가진 건 없으나 허우대가 멀쩡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결혼 후 십여 년 남짓밖에 더 버티지를 못한 셈이었다. 완전히 미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죽기 직전에

발작 증세까지 일으켰던 것도 순전히 그 병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최창학 1990, 163-165).

‘나’의 이종사촌형은 두 번이나 사산을 했고 태어난 아이도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그 자신도 몸이 쭈시고 화끈거리다가 극심한 고통과 정신 발작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종사촌형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살다가 전쟁 말기 군수공장의 군사용 방공호를 파는데 동원되었다가 피폭을 당하고 귀국했다. 상처가 없어서 결혼도 했지만 십 년여가 지나 병이 발병하여 사망했다. 여기서 독자는 원자병 혹은 원폭 병이 정상 아내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잠복기를 거쳐 수년 후에도 발병하며 증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노파)는 그 당시 스물여덟 살의 나이로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국민학교 일학년짜리 아들 하나, 네 살짜리 딸 하나와 함께 히로시마 번두리에 살고 있었다. …(중략)… 우리는 거지가 되었다. 남의 집 부엌일을 해주지 못하게 된 내가 공사판에 나가 이것저것 해 보았으나 힘이 부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고된 일을 해도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나 주저앉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중략)… 아들은 웬만한 병원은 물론 문둥이병만을 전문 치료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약을 구해다 나를 살려 놓았다.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했다. 내가 좀 나아지자 엉뚱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아들이 낳은 손자애들이 둘 다 그 모양이 되고, 또 아들에게도 전에는 몰랐던 이상한 병증이 하나 둘 나타났다. 이곳으로 와 배를 사서 고

기를 잡다가 지금은 배조차 팔아치우고 남들의 뒷일을 거들어 주며 목숨을 이어 가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중략)… 무슨 협회네 뭐네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조사는 몇 차례씩 해 가고서도 왜 이날 이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최창학 1990, 168-172).

잠을 자려면 나는 또 한잔 해야 돼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사내는 어느 사이에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뜸 상도 없이 막소주 대두병만 들고 나왔다. …(중략)… “즐긴다기보다 요즈음엔 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셔야 몸의 아픔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몸의 아픔이 덜 해요? 우리 생각엔 더 아프실 것 같은데요.” “아뇨, 그렇지 않아요. 술을 안 마셨을 땐 몸에 피가 안 통하고 살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은데 마시고 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슴의 답답증이나 쑤시는 증세도 훨씬 덜하고…. 물론 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머니만 해도 술을 한잔 마셨다 하면 열 때문에 건디시지를 못하니까요.” …(중략)… “지금에야 병명은 확실해진 셈이지만 그런데도 자식들에 대해선 이상하게 생각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아무리 유전이라도 어떻게 제 자식이 저보다 더 심한 증세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략)… “오늘 낳을지 내일 낳을지 알 수 없는 내 셋째 놈 말입니다. 벌써 예정일이 지나 오늘 밤에라도 낳을지 불안한데 낳아 봤자 이놈도 병신일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략)…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 좀 더 크게 된다면… 생긴 꼴도 생긴 꼴이지만 더 큰 속병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또 배어 또 낳게 생겼으니 내가 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 아니

조”(최창학 1990, 173-176).

이에 비해 노파는 조금만 고된 일을 해도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나 주저앉는 증세가 있다. 아들은 노파가 귀국한 후 임신했기 때문에 직접 피폭당하지도 않았는데 원폭병이 발병했다. 그는 술을 마셔야 통증이 줄고 잠을 잘 수 있다. 그의 아내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처럼 아플까 봐 걱정이다. “여덟 살 가량으로 보이는 계집애는 코가 이상했고 다섯 살 가량으로 보이는 사내는 입이 이상했다. 흥측하게 문드러진 코와 언청이라도 아주 심한 언청이처럼 무섭게 찢어져 벌어진 입술이 노파를 처음 보았을 때나 비슷하게 문둥이를 연상시켰다”는 설명처럼 첫째와 둘째는 출생 때 이미 외모부터가 기형이었다. 독자는 이종사촌형, 노파, 노파의 아들과 손자의 사례를 통해 원폭이 유전한다는 사실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나며 몸에 열이 나는 증세, 기형 출산 등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안에서 원폭병이란 병명도 이제야 정립되었다고 할 만큼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치료비 때문에 원폭 피해자는 병고와 가난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 그래서 원폭문학 『흉터의 꽃』(2017)의 저자 김옥숙은 해방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의 삶을 작품에서 “원폭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피폭이나 전쟁보다 피폭 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훨씬 힘들었다.

「해변의 묘지」를 접한 독자는 자신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원폭지옥’의 실상과 고통에 놀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정신 발작 증세를 겪은 이종사촌형의

사례를 통해 원폭의 트라우마를 일부 가시화하고 노파의 3대 가족을 매개로 외상뿐만 아니라 수십 년 지속되고 있는 ‘원폭 유전’의 설정을 통해 원폭의 참상과 가난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는 역사적 사실도 각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설의 전달력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기획 의도와 재현이 지닌 당대적 의미가 점점되어야만 원폭 문제가 공론장에 진입하고 역사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원폭 같은 재난을 다룬 서사는 복잡한 상황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기억하고 추모할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작가 최창학은 소설을 통해 원폭 문제를 사회화하는 데 일조한 셈이지만, 원폭 피해자 재현이 가능한 것은 작가도 사전에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뜻한다. 소설에도 쓰고 있듯 ‘원폭병이란 병명이 이제야 정착하고, 협회가 노파를 조사는 했지만 도움은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작가의 창작이 가능해진 것도 1970년대 드디어 한국에서 원폭 문제가 일정 부분 알려진 결과이다.

일본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1973년 12월 15일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가 개원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더 이슈가 된 것은 1975년 3월 4일 이남수의 죽음이었다. 그는 히로시마 미쓰비시 조선소 징용 피폭자인데 원폭증을 앓다가 사망했다. “일본정부로부터 보상 약속을 받을 때까지 내 시체를 일본대사관에 놔두라”는 유언이 화제가 되었다. 그의 영결식장에 일본정부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주한일본대사관참사관이 참석해 ‘속죄의 분향’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1년에 한번 원폭투하의 날 같은 때가 아니면 원폭 피해자를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²⁾ 1975년 3월 10일 이우정의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가 『창작과 비평』에 실렸고 박수복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 강수원이 엮은 『가공 원자 폭탄 투하: 과연 인류는 전멸할 것인가?』(1976)가 간행되면서 한국은 비로소 구체적으로 원폭 피해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최창학은 이러한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강수원에 따르면 “원폭증’은 ‘원자폭탄에 의한 후장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태반이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방출한 방사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 폭발 후에 일어나는 열상에 의한 반흔(癩痕)·켈로이드·폭풍에 의한 외상 뒤의 장해·골관절의 기능장해 등이 있다. 인정된 주요 질환은 소화기계질환, 내분비계질환, 외과계질환, 눈질환, 신경계질환, 고도 소두증, 악성 신생물, 조혈기질환 등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러므로 ‘원폭증’이란 고유의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원폭의료법에 의해 인정된 질병을 말하는 것이며 실은 피폭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병하는 병이다”(강수원 1976, 107-108). 방사능 피폭으로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급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폭병으로 불린 원폭증은 외상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의한 급성·악성·만성의 장해가 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완만한 조직의 발병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처럼 원폭병은 각종 원폭후유증의 통칭인 셈이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병증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

12) “무관심과 천대에 서러운 원폭피해자”. 동아일보 1975/3/7, 6; “버림받은 ‘원폭피해자’”. 조선일보 1975/3/7, 7.

다.13) 그래서 최창학은 내상보다는 외상에 집중하여 노파, 아들, 손자의 외모를 흉측하게 그리고 설명하기 쉬운 원폭 유전에 집중하여 사산, 출산 후 사망, 기형아, 잠복기 거친 발병 등을 강조했다.

그런데 원폭 유전에 따른 원폭 후유증은 지금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정부 모두 원폭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017년 5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¹⁴⁾(2016.5.29 제정)이

13) 합천진료소 개원 후 1년간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경통이 가장 많고 소화기 장애, 고혈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수원 1976, 258).

병명	인수	병명	인수	병명	인수
당뇨병	8명	절단	1명	순환기질환	22명
요결석	1명	골절	2명	폐결핵	13명
전립선염	2명	켈로이드증	26명	호흡기장애	22명
기관지염	18명	정신이상	6명	간기능장애	42명
빈혈	24명	관절염	25명	소화기장애	58명
심장질환	9명	신경통	62명	백내장	4명
고혈압	54명				

14) (약칭: 원폭 피해자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

시행되었지만 이 법은 피폭 1세만을 대상으로 한다. 유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피폭 2·3세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전문가들이 쥐 실험 등을 통해 원폭 유전을 주장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1980년 2월 일본 최초로 원폭피폭자 2세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1년에 1회씩 검진이 실시되고 있다(이치바 준코 2003, 338). 원폭 유전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내 피폭 2·3세는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자신의 몸과 후손의 죽음 및 병세로 증명하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작가 최창학도 '나'의 이종사촌형의 자식 사망과 노파 3대 가족의 사례를 통해 '원폭 유전'을 지지하고 원폭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에게 피폭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설을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사회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는 한이 쌓일 수밖에 없다. 원망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에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도 없고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있었다는 얘기밖에 없다. 귀국 후 이들을 방치한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도 없다. 다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조사는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지적뿐이다. 1975년 이우정은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피폭자가 현재 한국에 약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며 협회에 등록된 인원만도 9,3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피해자 수는 일본 전체의 피폭자 수의 약 1

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피폭자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 수행 도구로 혹사되다가 참화를 당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피폭자들도 이 순간, 이 시각에도 천추의 한을 품고 세상을 한탄하며 억울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억울하고 통분할 일입니까?”(이우정 1975/3/10, 212)라고 했다. 강수원도 책의 제3부에 군국주의 일본의 죄악상 및 민족의 수난을 피폭과 연결해 식민의 기억을 정리했다. 김원일, 김태연, 김옥숙의 원폭문학에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비판, 징용 형식의 강제동원의 혹사 실태, 원폭 투하에 의한 폭사(爆死)와 방사능에 피폭당한 희생자의 분노와 울분이 표출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에는 일본을 향한 적개심이 없다. 다른 한국의 원폭문학과 달리 강한 민족주의 서사가 아닌 셈이다.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민족주의 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대가 서사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원일, 김태연, 김옥숙의 작품은 모두 합천이 중요한 배경이다. 합천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식민지 시대 가난 때문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정책과 관련해 비판하기 좋았다. 이와 달리 최창학은 민족 감정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 「해변의 묘지」에서 공간은 한국의 어느 해변으로 되어 있을 뿐 지역명이 없다. 또한 '나'의 이종사촌형이나 노파와 시아버지, 남편의 고향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고향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피폭 후 고향으로 복귀하는 서사가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향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역

사가 제대로 소환되지도 않고 일본의 지배정책 등이 다뤄지지 않아서 독자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거나 식민지배의 역사를 주입하는 서사적 기능도 부재하다. 이런 점에서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는 원폭의 참상과 유전, 피해자의 처지만이 집중적으로 독자에게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서사이다.

3. 사회적 소외, 거리감과 동정

앞장에서 원폭의 참상과 원폭 유전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 장에서는 원폭 피해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변의 묘지」는 김원일, 김태연, 김옥숙의 소설과 달리 주인공 ‘나’가 원폭 피해자나 그 후손이 아니어서 오히려 제3자가 피해 당사자를 관찰하거나 대하는 태도가 좀 더 가시화되는 효과가 있다. ‘나’와 연인 윤희의 정보는 서울에 살고 있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게 전부다. 피서 후 서울로 복귀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으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가졌다는 것이 파악된다. 따라서 「해변의 묘지」는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시선에 포착된 바닷가 노파 가족의 이야기다. 다만 ‘나’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원폭 피해자 이종사촌형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폭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인물이 아니다. 연인 윤희도 어릴 때 동네에 손발이 배배 꼬이고 한쪽 귀가 오그라든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던 기억이 있다.

(노파 - 인용자) 얼핏 보기에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칠십까지는 되

어 보이지 않고 육십은 넘어 보이는데 옷차림이 남루할 뿐 아니라 몸도 정상
이 아닌 것 같았다. 화상을 입었는지 문둥이처럼 얼굴이 이상한데다 몸의 어떤 부
분이 마비되어 있는 듯 기동이 자유롭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처음엔 똑같이 흠
칫 놀랐다(최창학 1990, 156).

(두 손자 - 인용자) 만삭인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서른 한두 살로 보이는
부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들어서는데 애들 둘이 다 정상이 아니었다. 여덟 살
가량으로 보이는 계집애는 코가 이상했고 다섯 살 가량으로 보이는 사내는 입이
이상했다. 흥척하게 문드러진 코와 언청이라도 아주 심한 언청이처럼 무섭게 찢
어져 벌어진 입술이 노파를 보았을 때나 문둥이를 연상시켰다(최창학 1990,
159).

(노파의 아들 - 인용자) 그를 보자 우리는 또다시, 그 노파와 애들을 처음
보았을 때나 비슷하게 몸을 움츠렸다. 사내 역시 노파와 애들의 분위기를 그
대로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그런데도 깡마른 데다 이제 서
른 너덧밖에 안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어깨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살갗이 장
작개비처럼 탄력이라곤 없어보였다. 거기다가 얼굴이며 목덜미며 팔뚝이 온통 병
적으로 검붉었고 열이 오르는 듯 옆에서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숨을 식식거렸
다(최창학 1990, 166).

‘나’와 윤희는 노파, 두 손녀, 노파의 아들인 사내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다. 얼굴에 피폭을 당한 노파의 안면에는 켈로이드(Keloid, 원폭 화상 흉

티)가 심하고, 노파의 아들인 사내는 노파가 귀국 후 낳았지만 유전의 잠복기를 거쳐 얼굴과 목덜미, 팔이 온통 검붉고 어깨가 뒤틀렸으며 살갗이 장작개비처럼 탄력이 없다. 손자인 첫째 여자아이는 코가 흥측하게 문드러졌고 둘째 남자아이는 언청이처럼 입이 심하게 찢어져 있다. ‘나’와 윤희는 이들을 보고 ‘문둥이’를 떠올린다.

특히 ‘나’는 윤희에게 말하지는 않고 혼자 속으로 ‘매독’을 떠올린다. “의사로 있는 선배한테서 언젠가 거리의 여자들 조심하라는 주의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 것이었다. 매독은 그 당사자에게보다 자손들한테 더 끔찍한 꼴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엔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자지라든지 아무데라도 흐물흐물 문드러져 떨어져나간다는 이야기였다. 매독이야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옮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독 때문이라면 기분이 이상해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최창학 1990, 160). 매독은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 노파의 아들인 사내가 큰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병원의사도 “결혼하기 전에 화류계 여자와 놀아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대에는 의학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고 다양한 증세의 원폭병도 생경해서 사람들은 원폭 피해자의 흉터와 장애를 보고 한센병, 매독을 떠올렸다. 이종사촌형이 피폭자였지만 ‘나’ 역시 원폭을 떠올리지 못하고 매독까지 염두에 둔다. ‘나’는 사회성원의 한 명이다. ‘나’의 태도는 당대 사회적 인식의 한 단면이다. 다시 말해 노파의 가족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의 반응을 쉽게 예상하고 있었다. 두 손녀의 병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사람은 해수욕을 가려고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서는데 노파는 이들을 보자마자 “오, 우리 애들을 보고 이상해

서 따라 들어온 모양이구먼? 혹시 문딩이가 아닌가 하고……. 염려마. 문딩이는 아니니께. 동네에도 우리더러 문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미쳐서들 하는 소리여. 잘 봐. 문딩이가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겠어? 문딩이는 눈썹부터 빠지는 뱀이여. 노파는 공연히 혼자 흥분했다.” 이처럼 노인은 평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이 한센병이 아니라는 근거까지 준비해 두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부 동네 사람들이 노파의 가족을 한센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당시 의료 지식의 부족, 원폭 피해자의 소외, 사회적 편견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원폭의 상흔과 후유증이 한센병, 매독과 결부되어 사고되던 시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파의 가족을 매개로 원폭병의 지식을 습득하는 두 사람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자. 노파의 말에 민망해진 두 사람은 첫 인상의 혐오감을 숨기고 머무르기로 하는데, 첫날 밤 노파의 피폭과 가족사, 둘째 밤은 노파의 아들인 사내의 원폭 후유증과 가족사를 듣게 된다. ‘나’는 첫날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노파는 이 세상에 자기네처럼 억울하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 온 집은 다시없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미 이종사촌형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였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노파의 집 비슷한 집이야 방방곡곡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었다”(최창학 1990, 168). ‘나’는 자살한 이종사촌형의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파의 고난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보통 타인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동정과 공감을 더 잘하기 마련인데 ‘나’는 오히려 흔한 일로 간주한다. 게다가 ‘나’는 녀두리 같은 노파의 이야

기를 연인끼리의 여행 첫날밤에 들었다며 언짢아했다.

주정으로 스쳐 들어버리기에는 사내의 표정이 너무 침통했다. 비질비질 눈물까지 보였는데 그것이 단순히 취기로 인한 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사내와 헤어져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사내에 대한 어떤 동정심보다는 괜히 이런 집에 기숙하게 되었다는 후회감에서 또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즐거워야 할 연인끼리의 모처럼의 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밤을 지내고 하룻밤을 더 지내고서야 그 집을 떠나왔다. 방값이야 닷새분을 지불했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였다(최창학 1990, 176-177).

다음 날 밤은 노파의 아들이 붙잡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다. ‘나’는 “비참하고 형별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자 했지만 겉으로는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뒤이어 두 사람은 사내의 사연을 듣고 ‘동정심보다는 후회감’에 젖어든다. 사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더라도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이 상한 두 사람은 5일 일정을 3일로 단축하고 서울로 복귀하고 만다.

결국 노파의 가족은 친지 중에 자살한 피폭자가 있는 ‘나’로부터도 동정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육이오사변으로 불구자가 워낙 많이 생겨

서 피폭자가 말조차 꺼낼 처지가 못 되고 말았지만 사변 때의 불구자들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라고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동정조차 하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겼다. 타자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연애 감정이 더 중요했다. 따라서 「해변의 묘지」는 배울 만큼 배우고 젊은 20대 커플을 내세워 피폭자의 사회적 소외, 원폭 피해자의 소외의식, 일반인과 피폭자 간 사회적 거리감을 가시화하며 동정과 공감의 문제를 환기하는 서사적 효과가 있다.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나'의 사고와 행동은 대다수 사회적 경향과 인식의 투사물이다.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모두들 힘들게 사는 현실에서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보다 우선한다. 「해변의 묘지」에는 노파의 가족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국, 일본, 미국 정부의 지원도 없고 언급 자체도 되지 않는다. 이웃도 없다. 협회가 실태조사만 하고 소식이 없다는 게 전부다. 앞서 말했듯이 「해변의 묘지」의 공간적 배경은 어느 바닷가다. 진료소가 세워진 함천도 아니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있는 서울도 아니다. 주변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받은 경험도 없다. 노파는 피폭을 당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다가 없는 재산을 다 탕진했고, 노파의 아들은 어머니인 노파를 간병하고 부양하다가 자신까지 발병하여 배를 팔고 남의 일을 거들며 근근이 살고 있다. 원폭 피해자가 치료를 하다가 재산을 날리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실직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것은 전형적인 피폭자 집안의 생애사다.

우리 국내의 모든 기관이나 사회 실정은 지극히 냉정하고 이해가 없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피폭자의 건강상의 특수성을 우리 의학계는 물론 일반 사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건국도상에 6·25의 동란으로 말미암아 폐허화되었던 국가의 재건도상에 있으므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특히 보사(保証)행정면의 예산은 극히 팍박하여 보사 당국에 수차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실무관들은 우리의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 동경하면서도 제도상 또는 예산상 구호할 근거조차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본 협회는 위의 보사 당국의 딱한 입장을 보고 수차 청와대에 진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대통령 각하에게 탄원했었으나 매번 청문(整問)됨이 없이 진정서는 보사부로, 적십자사로 맴돌 뿐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우정 1975/3/10, 216).

당시 가난한 한국에서 사회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제대로 구축되기 이전이고 피폭자만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일본의 배상도 없었다. 1965년 한일회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을 치렀다. 전쟁의 피해자, 불구자가 너무나 많았다. 전쟁 후유증이 극심하여 전쟁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했고 극빈 국가여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1970년대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신영수 - 인용자) 언제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르게 - 사람은 저마다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도 본능에 가까운 인간 최대의 욕망인 것이다. …(중

략)… 개(個)를 무시한 전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짓밟고서 무슨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아니 전체 인류는 우리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참상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그 원인을 캐고, 따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하여야 하며, 또다시 이러한 불행과 부조리가 지구상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는 것이 곧 세계 평화에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박수복 1975, 17-1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 신영수는 “피폭자에게 관심과 동정을 보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을 “냉정한 한국 사회”, “메마른 우리 사회, 우리 동포”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피폭자도 남들처럼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며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해변의 묘지」에서도 사내 부부의 소원은 정상적인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사내와 그 아내는 또 기형아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지만 설마 하는 심정에서 출산을 감행한다. ‘나’는 유전을 생각하면 피폭자는 자식을 낳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들처럼 자식을 키우며 행복을 누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같은 바람은 기형아의 출생으로 좌절되고 만다. 그러면서 이 소설도 끝을 맺는다. 피폭자는 대다수가 꾸리는 ‘정상가족’의 구성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해변의 묘지」는 피폭자 가족을 공간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게 해서 최소한의 의료 정보나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가난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소중한 인연끼리 놀러 와서 비싼 피서를 즐기지만, 피폭자 가족은 병고와 가난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동정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 이 작품은 가해자인 미국과 일본도 배제하여 철저히 일국적인 서사다. 이로 인해 「해변의 묘지」는 1970년대 원폭을 매개로 이루어진 한일 시민연대의 기억을¹⁵⁾ 배제하는 역효과가 있지만 피폭자 가족이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원폭 지옥의 삶을 사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 ‘해변의 묘지’도 독자가 작품의 분위기와 피해자의 삶을 가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해변의 묘지’가 ‘해변의 노파의 집’이라면 노파의 집은 죽음의 묘지인 셈이다. 이 묘지는 누구도 찾지 않는다. 또한 ‘해변의 묘지’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는 구절로 많이 알려진 폴 발레리

15) 1965년 5월 22일 민간 히로시마현 본부가 재한피폭자실태 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정부나 대한적십자사를 향해 피폭자조사와 의료구제를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피해자 등록을 실시했다. 1968년 히로시마에서 최초로 한국인 위령제가 열린 후 한국에서는 1969년부터 조력을 받아 위령제가 시작되었다. 1968년 3월 30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특파원의 눈」란에 “한국에도 원폭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특집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도 1970년부터 매년 협회 대표가 방일(訪日)하여 한국 피폭자의 실정을 일본 각계에 호소 탄원하였다. 특히 1970년 12월 3일 손진두가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체포되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소송(1972.10.2~1978.3.30)을 진행했다. 손진두 밀항사건의 충격으로 일본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일본인 개인, 사회단체 등 민간사회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방한피폭자 위문, 의사단 파견, 환자 무료 초치치료, 기금 모금, 합천원폭진료소 건립 및 지원 등 다양한 자선적 후원을 시작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인 피폭자의 연대의 역사는 오은정(2018, 103-147)을 참조할 것.

의 시 「해변의 묘지」와 제목이 동일하다. 이 작품은 당시 김현에 의해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김현은 ‘바람이 분다! …… 살아야겠다!’라는 시구를 “바람이 인다 …… 살려고 애써야 한다”(P. 발레리 1976, 65)로 번역했다. 작가 최창학은 죽음이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원폭 지옥의 삶이지만 원폭 피해자에게 생을 포기하지 말고 힘써 살아야 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4. 나가며: 비극의 유전, 기억의 유전

히로시마에서 원폭으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유춘성이 1973년 사망했고 1975년 히로시마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피폭을 당한 이남수가 작고했다. 이남수는 1960년 무렵부터 피폭 증세가 나타나 당뇨병으로 전신마비가 되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난과 통증에 시달렸다. 이처럼 무고한 피폭자들은 그동안 치유의 가망도 없는 원폭병 치료에 가산을 탕진하고 병고에 시달리다 원한에 사무친 일생을 마쳤다. 이외에도 2만여 명이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며 산송장과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 자손들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유전반응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피폭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해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왔음은 같은 동포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더구나 관계 당국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⁶⁾라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그전부터 원폭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던 소수의 사람들도

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와 지식을 정리하여 저술 작업을 했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중후반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실상이 기록되고 조금씩 사회화되어 공적 기억화 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우정, 박수복, 강수원의 글은 그 산물이다. 최창학의 소설 「해변의 묘지」는 이러한 지적 토대 위에서 구상되고 작품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57년 3월 31일 원폭의료법이 제정되어 원폭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폭자건강수첩’이 교부되고 건강진단과 원폭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65년 11월 일본 후생성이 처음으로 원폭 피폭자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고, 1968년 5월 20일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원폭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특별수당, 건강관리수당, 간호수당, 의료수당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되었다. 1973년 10월 1일에는 원폭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특별 피폭자를 폐지하고 모든 피폭자에게 일반병원의료비 지급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매년 90억 엔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그동안 일본 피폭자들을 위해 ABCC(원폭상해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십억 달러의 구호기금을 보내 오고 있는 사실이(이우정 1975/3, 228) 한국에도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한 피폭자 문제는 한일회담의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책임이 청산되었다는 입장이었고, 주한미국 대사관의 일등 서기관은 미국 역사상 전쟁 배상을 해준 적은 없다며 외면했다. 합천원폭피해자인료소 건립 당시 약과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국 정부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 합천 면장

16) “어느 원폭피해자의 죽음”. 경향신문 1975/3/8, 2.

백광흠은 해방 후 지금까지 관심 밖에 내팽개쳐져 온 원폭 피해자들의 비참한 생활에 정부나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일본 히로시마 거류민단에게 진료소 비품 물건들까지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이우정 1975/3, 225).

이처럼 1970년대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재일조선인의 도움과 연대가 이루어지지만 한국정부와 국민은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경향신문 회장 최석채는 망각을 빙자한 현실 도피를 경계하고 내버려 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는 일의 의미를 환기하며 원폭 피해자에 주목했다. 그는 “비극은 그 원인의 비극성 말고도 비극적 상황의 방치에서 더 큰 비극으로 유전인자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겪은 비극은 주전국(主戰國)이 아니면서 주전국과 같은 질량의 혹독한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죽음은 똑같이 처절한 죽음이면서도 부록처럼 취급받아야 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눈감은 5만여 명의 한국인과 부상당한 4만여 명의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슬픔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그 엄청난 피해가 어떤 이유에 근거했건 거의 잊혀왔기 때문이”(박수복 1975, 13)라고 했다. 최석채는 원폭 피해자로부터 비극의 방치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유전’을 발견한다. 한국인은 이들의 죽음에 죄악감을 느끼고 기억해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창학의 소설 작업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록하여 한국의 잊힌 역사를 일부 복원하고 현존하는 피해자의 문제를 사회화하는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족감정이나 일본의 식민지배의 잔학성을 강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피폭자의 원폭병과 후손에게 원폭 후 유증이 대물림 되는 원폭 유전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이종산촌형도 자식을 잃고 자살했으며 노파의 아들과 손자, 손녀에게도 원폭병의 유전이 계속되고 있다. 작가는 피폭자 가족의 신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원폭 유전을 실증하고 피폭 2·3세의 고통과 바람을 대변했다. 노파의 아들 부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행복을 느끼는 게 생의 유일한 바람이다. 사내는 곧 태어날 셋째도 사산하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산을 감행하는 자신을 성욕을 못 참는 더러운 자식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태어난 셋째는 절망적이게도 장애가 심해서 기어 다니지도 못했다. 이처럼 소외되고 주변부에 위치한 피폭자가 현실에서 도일 치료 소식을 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처럼 피폭자의 비극은 피폭 순간보다 오히려 피폭 이후에 죽음과 원폭병의 고통을 더 생각해야 하는 데 있다. 피해의 지속은 원폭 피해자의 원폭지옥의 지속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 냉대는 원폭 지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작가는 자살한 원폭 피해자를 친척으로 둔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나’의 의식과 감정이 한국 사회 성원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대표되는 셈이다. ‘나’에게 노파의 가족 같은 불행은 전국에 많으며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었다. 작가는 ‘나’를 매개로 다른 사람의 재난에 무관심한 한국 사회의 윤리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심과 동정, 공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핵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1980년대 초 중반 국제정세와 맞물려 핵위험의 경각심 문제와도 결부된다. 비극이 유

전되어 한 사회의 '비극의 역사'가 되듯 원폭의 소설화는 '사회적 기억의 유전'이자 또 다른 작품 출현의 유전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해변의 묘지」는 한국의 초기 원폭문학으로서 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다~~

참고문헌

- 강수원(姜壽元) 역음. 1976. 『가공 원자 폭탄 투하』. 금강출판사.
- 개디스, 존 루이스. 2010. 『냉전의 역사』. 정철·강규형 역. 에코리브르.
- 라자놉스키, 니콜라스 V.·마크 D.스타인버그. 2011. 『러시아의 역사』. 조호연 역. 까치.
- 박수복(朴秀復).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서울: 창원사.
- 브링클리, 앨런. 2011.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 황혜성 외 역. 휴머니스트.
-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 103-147.
-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 2016. 『죽은 자들의 응성임』. 장윤선 역. 글항아리.
- 이우정. 1975/3/10.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 35호. 211-238.
- 이치바 준코.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이제수 역. 역사비평사.
- 이행선. 2018.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 - 김옥숙, 『흉터의 꽃』(2017)”. 『기억과 전망』 39호. 177.
- _____. 2021a. “『핵전쟁』(랩, 랠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한국학』 통권 164호. 87-123.
- _____. 2021b. “1992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분신자살, 원폭의 사회화 -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6)”. 『한국문화』 95호. 3-35.
- 정육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 정재경.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 최창학. 1990. 「해변의 묘지」(1981). 『몇 개의 낙서를 통한 회상』. 정민.

발레리, P. 1973.12/1976.3. 『해변의 묘지』. 김현 역. 민음사.
주트, 토니. 2019. 『전후 유럽 1945~2005』 2. 조행복 역. 열린책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창작과 비평

Choi Chang-hak's 1981 Atomic Bomb Novel Cemetery on the Beach and Korean Atomic Bomb Victims

Lee, Haeng-seon

Assistant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This study discusses *Cemetery on the Beach*, an atomic bomb novel written in 1981 by Choi Chang-hak (1941-2020). The late 1970s, when Choi envisioned this novel, was a period when the end of the *détente* opened an accelerating nuclear arms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Soviet Union. Witnessing the the Soviet Union's SS-20 deployment, the air strikes on Afghanistan, and US President Reagan's intervention, Choi turned his eyes to the atomic bombs of World War II. At the time, the Korean victims of the Hiroshima atomic bombs were also experiencing changes. On October 8, 1980, the two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decided to take the Korean victims to Japan for medical treatment. Choi put together his ideas for the novel in the 1970s amid the news of the new Hapcheon Atomic Bomb Victims Medical Center, the court's ruling in favor of Son Jin-doo, a victim of the Hiroshima atomic bombs, and the medical treatment for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in Japan. At a time when the Son Jin-doo lawsuit opened a small window for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to obtain the Japanese Hibakusha Techo (booklet certifying atomic bomb victims) and go to Japan for medical treatment, what of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ttracted Choi's attention and what did Choi seek to deliver to the readers on their behalf? A messenger narrating the history of war and its victims is compelled to worry over what to write and how. Since *Cemetery on the Beach* is a product of such worries, it is necessary to uncover the novel's literary strategy and effects.



■ **Keywords:** Atomic bomb sickness, Genetic effects, Sympathy, Paul Valery, Cold War

투고: 2021.8.31. 심사: 2021.10.12. 확정: 2021.11.2.